

종합대학 인문사회계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 아시아 각국의 시각

지난 5월 23일,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러시아센터는 아시아 지역연구기관 협의회와 함께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종합대학 인문사회계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 아시아 각국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신정철 교수**(서울대 교육학과)는 “대학 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 대학 학사 조직의 관점에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대학의 역사와 형태별 대학의 기능을 개괄했다. 그는 대학의 핵심 기능은 교육과 연구에 있으며 이들의 조화가 관건이라 지적하면서, 서울대학교 연구소들의 비활성화 원인으로 교수들이 학부에 충성해야 되는 행정적 구조를 꼽았다. 그는 대학원 기반의 연구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서울대의 가장 바람직한 발전 방향임을 피력하였다.

이후 타국의 대학 내 연구소의 사정을 검토하는 시간이 이어졌는데, 가장 먼저 **강성용 연구원**(서울대 인문학연구원)은 “독일 대학의 역동성을 구성하는 축, 연구소 제도의 함축”이라는 제목으로 독일 대학 내 연구소의 구조를 살폈다. 독일의 대학은 단과대학 중심의 대학과 직업대학으로 구별되며, 단과대학은 공무원 정원으로 상정된 정교수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진다. 동시에 정교수직을 지닌 교수가 연구소에도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는 구체적인 교원들과 행정직원들, 건물과 도서관 등등의 기초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남기정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일본의 인문사회 계열 대학 연구소 사례 연구: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와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와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의 사례를 들어 일본대학 내 연구소의 특성을 일별했다. 그는 이 두 연구소가 대학의 기본조직인 학부 및 대학원과 같은 위상을 지닌 조직이며, 대학의 특색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설연구소를 도입하기 전 일본 대학의 구조나 사정이 현재 한국의 대학 사정과 비슷하므로 향후 비교, 검토하여 한국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의 대학 실정은 **서옥란 교수**(중국연변대)가 “중국 대학 인문사회계 연구소의 역할과 위상”이라는 발표에서 고찰하였다. 중국의 연구기관은 교학 기관의 부속으로 존재하다가 단과 대학에서 독립하는 중이며 연구소 소장과 단과대 학장이 동등한 지위를 지니고, 연구원도 서울대학교처럼 특정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РУССКИЙ ЦЕНТР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원의 위상과 연구영역을 고려하여 채용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호 연구원(서강대 동아연구소)은 “다인종·다문화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인문사회계 연구소: 싱가포르 국립대학 아시아연구소(ARI)의 운영 현황”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의 대학부설 연구소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아시아연구소의 핵심은 연구클러스터로 현재 아시아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는 모두 이 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외부 펀딩 역시 클러스터 위주로 수주된다고 밝혔다. 다만 2년에서 4년 정도의 임시직이 구조적 단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수진 소장**(아시아연구소)은 서울대 연구소들의 문제점으로 불분명한 정체성, 세계적 연구원의 부재, 대다수 연구소의 미미한 연구 실적 등을 거론하며, 서울대학교 연구소들이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고, 기존의 교육 및 연구의 부속시설이라는 위상을 벗어나 학내에서 학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춰야 하며, 운영 실적에 따라 통합 혹은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